

2010년 ITU-T TSAG 회의



오태건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오세순 |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과장

1. 머리말

ITU-T의 TSAG은 1992년 ITU 추가전권위원회의의 결의(제3호)로 각 부문별 자문반 신설 권고에 따라, 1993년 WTSC에서 ITU-T 분야의 전략기획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표준화 자문그룹이다.

TSAG의 주요 업무는 ITU-T 연구반 재구성, 의장단 임명, 연구반 일정 조정, 특별 작업그룹 구성과 의장단 임명, ToR 작성, 작업계획 승인, A 시리즈 권고(ITU-T 작업구조) 승인, TSB에 재정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조언, 기존·신규 과제 검토 및 작업계획 승인, 우선순위, 긴급성, A 시리즈 권고 제/개정 및 연구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TSAG 회의는 지난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4개 회원국, 16개 부문회원 등 총 142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오태건 사무관을 수석대표로 TTA, ETRI, ITU-T SG13 의장 등 8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 TSAG 의장인 캐나다의 Mr. John Visser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Mr. Bruce Gracie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고, 또

한 부의장 1명(아프리카 지역, 가봉)이 ITU 직원으로 임명되어 그 자리에 신임 부의장(가나)을 선출했다.

2. 주요 회의결과

2.1 스마트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포커스그룹 신설

2009년도 CTO회의에서 제기된 표준화 필요성을 이번 TSAG 회의에서 집중 논의한 결과 스마트 그리드 포커스그룹과 클라우드 컴퓨팅 포커스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작업 영역을 규정하는 ToR을 향후 4주간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하기로 했다.

포커스그룹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표준화 이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1년)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그룹(Parent Group)에 보고하는 조직으로, ITU-T 회원 및 비회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SG13 의장(ETRI, 이재섭 초빙연구원)의 주도로 작성한 ToR에서는 동 포커스그룹의 작업영역으로 관련 용어 정의, 요구사항 및 기능정리, 외부 표준화 기구의 관련 연구현황 파악, 활용사례 및 서비스 모델 제시, ITU-T의 표준화 영역 파악 및 표준화 로드맵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포커스그룹은 2009년도 JTC 1에서 신설한 SC38 산하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그룹과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작업 영역이 여러 연구반에 걸쳐있는 관계로 당분간 TSAG을 해당 그룹으로 지정했으며, 의장단은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2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WTSA 결의 76) 논의

2009년도 ITU 이사회에서 WTSA 결의 76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적합성 프로그램 설치, 상호운용성 시험, capacity 구축, 개발도상국에 시험센터 설립 등의 액션을 승인한 바 있으며, ITU-T 사무국인 TSB에서는 적합성평가 DB를 ITU-T 홈페이지에 Open하고 IT 업체들에게 동 DB에 해당 IT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미국, 프랑스 등 중심으로 대다수 회원국은 법적 책임 문제, 예산 문제, 미래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 충분한 연구를 통한 순차적인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사전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는 동 DB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시리아, 가나 등 개발도상국은 상호운용성 및 적합성평가의 중요성과 DB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논의 결과, TSAG의 역할은 동 이슈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하게 조언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TSB는 회원국 및 부문회원이 제출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표준개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 DB는 산업체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개도국의 요구사항은 관련 워크숍의 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TSAG에서 관련 이행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회원국에게는 JCA-CIT(Joint Coordination Activity-

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 Test)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DB 운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등은 추후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상호운용성 시험을 통한 경험축적과 비즈니스 플랜 수립 이후에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으며, ITU-T에서는 2010년 하반기에 홈 네트워크, IPTV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을 밝혔다.

2.3 권고 품질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사우디텔레콤 사업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권고 품질 향상을 위한 1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에디터 가이드에 포함하기로 하고, 각 연구과제의 라포처들은 권고 승인 이전에 동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권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으며, 13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술적으로 명확한지 검토되었는가?
- ② 기술적으로 sound 한가? 최소한의 옵션
- ③ 이미 제정되어 있는 ITU-T 권고와 중복되지 않는가?
- ④ normative part에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⑤ 그림 예제가 normative part에 포함되어 있는가?
(짧은 그림 예제는 제외)
- ⑥ 에디터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는가?
(ITU-T 양식 등)
- ⑦ 오타가 없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 ⑧ 용어정의가 ITU-T 용어 DB와 충돌되지 않으며 및 SCV의 지침을 따르는가?
- ⑨ 모든 약어(그림 및 표 포함)가 명확한가?
- ⑩ 2절(참고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참고문헌이 normative part에 사용되었나?
- ⑪ 2절(참고문헌)의 모든 참고문헌이 A.5에 일치하나?

⑫ WISA 결의 1에 따라 적절한 승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⑬ 관련 연구반, ITU 부문, 확인된 외부 SDO들과의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에디터를 맡고 있는 권고안 작성에 있어서 동 체크리스트를 신중히 확인하여 향후 권고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 ITU-T 권고 A.23 Annex A 개정안 승인

ITU-T와 JTC1 간 협력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A.23 Annex A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최종 승인 하였으며, 개정안은 양 기구의 표준화 절차를 현행화하고, 용어 정의를 보완했다.

① Common text(Identical Recommendation/International Standard) : ITU-T와 JTC 1이 공동으로 개발한 문서로, 기술적인 내용과 text가 모두 일치하는 문서(표준)

② Twin text(Paired Recommendation/International Standard) : ITU-T와 JTC 1이 공동으로 개발한 문서로, 기술적인 내용은 일치하지만, text가 일치하지는 않은 문서(표준)

2.5 기타사항

우리나라는 전자적 회의 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는데 동 사항은 ITU-T뿐만 아니라 ITU 전반적인 문

제이므로 ITU 이사회(2010년 4월) 및 전권회의(2010년 10월)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ITU 전략계획(2012~2015년)을 검토하고, ITU-T 부문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동 전략계획은 이사회 작업반 및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되어 전권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동 전략계획에는 ITU-T의 목표(Goal)를 상호운용 가능한 국제 표준의 개발, 표준화 격차 해소 지원, 국제적·지역적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정리하고, ITU-T의 목적(Objective)으로 4개의 항목(국제적 협력 및 조정, 글로벌 표준의 개발, 표준화 격차 해소, 정보 전달 및 확산)을 정리했다.

3. 맺음말

스마트 그리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 포커스그룹이 신설됨에 따라, 의장단 진출을 도모하고, TTA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 및 관련 업체들이 관련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표준화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술을 반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권고 품질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개발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에디터를 맡고 있는 분야에 철저하게 준비해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라포치 가이드를 준수해 TD를 적절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차기 TSAG 회의는 2011년 2월 7일이 속해 있는 주에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TTA**